

글로벌 시대 출판경쟁력 강화 논의 세미나 등 범출판인 화합의 장 펼쳐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는 지난 6월 19~21일 〈글로벌 지식기반 시대의 경쟁 전략〉을 주제로 출판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도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 출판사 대표 1백여 명 등 출판문화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 디지털 시대의 출판문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한편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민음사 박맹호 사장, 평화출판사 허창성 사장 등 원로 출판인과 신진 출판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신규 세대 출판인 간의 교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협회 이정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자 세미나 자리가 정보화 시대에 출판의 진정성 확인은 물론 경영개선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 오지철 차관은 만찬 격려사를 통해 “올해 우리 출판계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제국가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둔 만큼 정부도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영자 세미나 자리에서 출판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역임한 나춘호 사장(예림당)은 “우리 출판계는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5대 선진출판국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출판계 인사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조특강을 맡은 송병락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출판계 불황이 태풍 소멸처럼 빨리 소멸되기를 바란다”며 위기를 찬스로 만든 세계 전문가들의 경영전략을 통해 경영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소개했다. 그는 피터 드러커, 잭 웰치 등 저명한 전략 전문가의 경영방법론들이 모두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 ceo들에게 지식무장과 경영노하우의 적절한 안배를 주문했다. 송 교수는 또 미소와 선물, 관심 등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던 데일 카네기와 표정관리를 통한 경영기법을 선보인 라일 로온데스를 비교하면서 출판사 경영 역시 차별화된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의 올바른 경영이 조직의 경영을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출판사의 경영개선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가 정보화시대 출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글로벌 출판시대 경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 송병락 교수의 주제발표.





제주 칼호텔에서 사흘 동안 열린 '2003 출판경영자 세미나'에는 출판 문화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 바람직한 경영자의 자세와 출판환경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끌고, 이것이 사회정형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각 출판사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출판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의 경영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출판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재윤 교수(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는 <한국출판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현재 출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미래출판에 주어지는 과제들을 점검했다. 그는 '출판은 진정성을 가진 산업' 이라면서 출판계의 문지기가 되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출판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사 수가 느는 만큼 무실적 출판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출판계 현실을 짚은 후 독서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예리한 비판을 가했다. 독서운동은 있으나 베스트셀러 중심의 독서문화가 형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출판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2002년의 경우 성인 10명 기준 3명이 1년에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았는데 이들의 TV 시청시간은 독서시간에 비해 평일은 3.6배, 주말은 5배 이상이 넘는다면서 국민 독서량 부족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외국 저작물 위주의 출판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한국고유의 특성화된 기획출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재윤 교수는 정부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출판정책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고, 막간을 이용해 자신감 있게 악수하는 법, 단학훈련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 주제 발표를 활기 있게 끌어가는 면모를 보여줬다.

한편 인제대 강재현 교수(백병원 가정의학과)는 <경영자의 비만과 다이어트>를 주제로 경영자의 건강관리 필요성을 깊이있게 소개했다. 그는 마감을 두고 일하는 출판계 특성상 야식을 많이 하고, 마감이 끝났을 경우 폭식을 하게 된다면 출판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비만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교수는 '체중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당뇨병, 지방간 등을 포함하는 대사 증후군을 설명하면서 체중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원푸드 다이어트, 무조건 굶기 식 다이어트보다는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제주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